

2023. 1. 25.(수) 석간용

이 보도자료는 2023년 1월 25일 오전 06: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

## 보도 자료

담당부서 : 서울특별시 119특수구조단

행정지원과장

박 주 영

02-3706-1910

행 정 팀 장

한 정 민

02-3706-1911

사진있음 ■

쪽수 : 3쪽

담 당 자

이 찬 희

02-3706-1914

### 서울시 재난현장 누빌 선임 119구조견 '구구' 현장 본격 투입

- 선임 구조견 '구구' 119특수구조단 신규 배치...퇴역 구조견 '비호' 자리 메워
- 119구조견 전문훈련과정 수료, 국가공인 복합임무(산악+재난) 1급 자격 취득
- 최근 3년 119구조견 재난현장 221건 출동해 64명 구조, 산악출동이 83.7%

-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는 “재난현장을 누빌 새로운 119구조견 ‘구구’를 119특수구조단에 배치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”라고 25일 (수) 밝혔다.
-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선임 119구조견은 2015년 12월 도입되어 인명구조현장에서 임무를 완수하고 지난해 은퇴한 선임 119구조견 ‘비호’의 빈자리를 메운다.
- 이번에 119특수구조단의 새 식구로 들어온 ‘구구’(라브라도리트리버, '20.2.10.생)는 119구조견 전문훈련과정을 수료했으며 국가공인 복합임무(산악+재난) 1급 자격을 취득했다.

-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에서 실시된 전문훈련과정을 통해 산악수색 실습, 재난붕괴수색 실습 등 재난현장 인명 검색에 필수적인 기술을 익혔다. 신임 구조견과 함께할 핸들러(구조대원) 1명도 전문훈련과정에 참가하여 친화 교육을 받았다.
-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“신임 119구조견은 구조대원이 진입할 수 없는 붕괴매몰 현장, 주·야간 산악사고 현장에 투입되어 인명탐색 임무를 수행하게 될 것”이라고 말했다.
- 한편 서울특별시 119특수구조단은 ‘구구’를 포함한 ‘태양’, ‘태주’ 등 총 3마리의 119구조견을 보유·운영하고 있다.
- 최근 3년간 119구조견은 각종 재난현장에 221건을 출동하여 64명의 구조대상자를 발견 및 구조하였다. 이중 산악사고 구조출동이 185건으로 전체 출동건의 83.7%를 차지했다.

표1) 서울특별시, 119구조견 소방활동 실적('20~'22년)

년 도	출동건수	사고유형			처리내역별 건수		
		산악	붕괴	기타	계	발견(명)	미발견
누 계	221	185	7	29	221	64	157
2022년	77	60	4	13	77	17	60
2021년	97	86	2	9	97	24	73
2020년	47	39	1	7	47	23	24

출처 : 서울소방재난본부

- 주요 구조 활동으로는 종로구 낙원상가 건물 붕괴사고('17.01.), 성북구 공사장 붕괴사고('21.05.), 양주시 OO산업사업소 붕괴현장('22.01.) 등

각종 대형 재난 현장에 투입돼 인명구조 활동에 기여했다.

- 최태영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“지금까지 119구조견은 구조대의 일원으로서 각종 재난현장에 투입, 위기에 처한 시민의 생명을 구하는 일에 기여해 왔다”며 “새 식구가 된 ‘구구’ 또한 앞으로 재난현장에서 큰 활약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”라고 밝혔다.

사진1) 서울특별시, 119구조견 ‘구구’와 핸들러 소방장 이동수



핸들러 소방장 이동수 대원(왼쪽)과 119구조견 ‘구구’(오른쪽)가 함께하고 있다.